

투표용지 앞면

최고위원 후보자 성명											일련번호	
12 권노갑	11 신순범	10 노무현	9 박영숙	8 조세형	7 이부영	6 김정길	5 김영배	4 유준상	3 김원기	2 한광욱		1 안동선
○	○	○	○	○	○	○	○	○	○	○		○

투표용지 뒷면

후보자 투표참관인의 인			위원장 (인)	민중당전당대회준비위원회 (직인)	최고위원선거투표용지
김원웅	임영주	정경환			

※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1. 컴퓨터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컴퓨터 투표용지를 접거나 찢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것
3. 컴퓨터 OMR용 잉크나 붓대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
4. OMR ●표 이외에 문자, 성명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후보에게도 OMR ●표를 하지 아니한 것
6. OMR ●표를 했으나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것
7. 다섯 후보 이상 기표한 것(모두 무효)
8. OMR ●표가 네 후보까지만 기표된 것 중 무효기표가 있으면, 당해 기표만을 무효로 한다.
9. 기표란의 네모 좌우 경계선을 조금이라도 침범한 것.

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공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기 호

2 한광옥

(52세)



전주북중학교 졸업
 서울 중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영문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 수료
 대한학생정치외교협회 회장
 전국민권수호학생총연맹 준비위원장(학생운동중 투옥)
 제68차 IPU(국제의원연맹) 한국대표
 민주화추진협의회 대변인
 고대 및 건대사건으로 투옥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국회 노동위원장
 야권통합추진위원회 신민당 협상대표
 제11, 13, 14대 국회의원(3선)
 민주당 사무총장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장

한광옥 최고위원후보 사무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6번지 외교빌딩 703호 / 전화: (02) 761-3341~3, 3352~3 / FAX: (02) 761-3556

야권통합의 신화를 창조한 한광옥을 기억하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야당대통합의 주역

한광옥이 야당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신뢰할 만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광옥이 두 지도자와의 약속을 철석같이 지켜 안기부도 야당대통합의 성사를 사전에 알지 못했을 정도였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당의 단결과 화합을 이룬 유일한 책임자는 한광옥입니다

통합야당 민주당을 실현시킨 한광옥은 "민주당이 화합하여 대통령선거에 승리하라"는 것을 역사가 준 시명으로 알고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우리 당의 화합과 단합된 전진이 절실한 이 때에, 한광옥은 우리 당에 꼭 필요한 재목입니다.

승리하는 민주당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 하나** 지구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지구당에 대한 중앙당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구당 등 지방당직자의 유급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둘**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당직의 경선을 확대하고, 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의 공천과 정을 상향식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셋**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여성과 청년들의 대의원, 당직자 비율을 높이고, 공천할당제를 정착시켜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 넷** 당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겠습니다. 계보정치의 비능률을 극복하고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를 확립하여 당을 하나로 단결시키겠습니다.
- 다섯** 단체장선거 관철 등 강력한 대야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용공음해 진상규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조기 관철, 6공청문회 개최, 비민주적 악법의 폐기, 금융실명제 조기실시, 쌀수입 개방 저지 등 강력한 대야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강력한 민주당,
바로 이 사람 김원기!

대단합·합리적 개혁

김원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또 다시 정권교체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800만명의 신념에 찬 지지와 기대가 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은 우리 민주당에게 새롭게 태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의 교훈을 승화시켜 자기혁신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주당은 5년후 집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김원기는 대단합과 변화의 새시대를 열어갈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합리적 개혁의 새기운을 불어일으켜
집권의 기틀을 탄탄히 다져갈 사람,
바로 김원기입니다.

신뢰받는 정치인이다

‘신뢰성’은 정치지도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사저널」 여론조사에서 김원기는 ‘신뢰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동아」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상호평가에서도 ‘신뢰도’ 1위는
김원기였습니다.
신뢰받는 인물만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칙에는 굽힘이 없다

김원기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 1야당의 원내총무로서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갖은 회유와 압력을 물리치고 전두환 씨를
증언대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대변인, 정치홍원장, 사무총장 등 당의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정치력을
폭넓게 키워왔습니다.

단결의 용광로이다

김원기는 누구도 낙관하지 못한 야권통합을 성사시켜 민주당을
탄생시켰습니다.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으로 인화와 단결을 기치로
내걸고 당을 하나로 결속시켜 총선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김원기는 동서회합과 남북통일의 새시대를 열어갈 인화와 단결의
용광로입니다.

깨끗하고 실력있다

김원기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또한 16년 동안 언론계에서
쌓아온 통찰력, 4선의 국회의원, 당의 요직을 두루 맡아본 풍부한
경륜으로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집권의 새희망, 바로 김원기가 펼쳐집니다.

민주당 집권을 향한 김원기의 정책

- | | |
|---|--|
| <p>1 당 운영자금을 확보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외지구당 활동력 제고를 위한 활동비 보장 • 중앙당과 각 시·도지부 당직자들의 급여 현실화 | <p>3 선진·과학정당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민주화, 개방화로 명실상부한 국민정당 이룩 • 정책으로 싸우고 정책으로 승리하는 정책정당 건설 |
| <p>2 민주적 당 운영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향식 의사결정구조 강화 및 공직후보자의 경선제도 확립 • 당 발전을 위한 당내 연구씨클활동 적극 지원 | <p>4 지방자치제도를 완전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위원의 위상강화 및 단체장 선거의 전면 실시 • 지방의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제도 확립 |

학력 및 경력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교·연세대 정외과 졸업 •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수료 •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조사부장 (16년 간) • 한양대·동국대 강사 • 현정민권회 부이사장 • 제 10, 11, 13, 14대 국회의원 (4선) • 평화민주당 원내총무 (88~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화관, 한·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장 • 김대중 총재 정치특보 •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한국대표 (평양) • 야권통합 협상대표단장 • 국회 교육체육청소년위원장 (90~91) • 민주당 사무총장,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91~92) • 민주당 최고위원 (92~현) |
|---|---|

저서

「비화 제1공화국」 「북양개척사」 「믿음의 정치학」

3 김원기



변화와 교체의 기수

만나보면 통하는 사람

4호 유준상

새출발을 선언하며



유준상

국민이 정책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웃고, 즐기는
부드러운
정치문화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민주당 건설에
앞장서 일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저서》

- 「정치발전론」
- 「지도자의 미소」
- 「여의도에서 온 편지」
- 「일촌일품 운동」
- 「한국 경제의 과제와 전망」
- 「새역사의 지평을 열며」

“

저는 새시대의 희망을 갖고
40여 성장동안에 형성된 범민주 세력의
결집의지와 정통야당의 정신을 굳게 지키면서
김대중 선생의 철학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건강한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 사랑받는 민주당의 건설에
경륜있는 선배들과 함께 일하는 최고위원
으로서 힘껏 동참하겠습니다.

”

7대 공약

과거사에 대한 자리매김과 새출발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범 민주 세력의 統合과 강력한 야당건설
2. 당내 체질개선과 상향식 민주주의 실천
3. 당의 공명선거 실시와 권역별 전당대회 도입
4. 탈지역화, 탈계층화로 전국민의 사랑받는 건강한 민주당 건설
5. 시도지부 사무국장 및 주요간부, 각지구당 사무국장 유급제, 여성·청년 당직의무 비율확대
6. 정책정당의 기반조성, 지방의회 활성화 및 중앙당과 지구당 운영개선
7. 당료들의 의료보험 확대, 주택조합결성과 자녀들의 장학제도 실시

- 1942년 전남 보성 출생 (현51세)
- 광주고/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 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연수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고대 총학생회장(직대)
- (주)해동유조 대표이사
- 해동출판사 사장
- 12·12 쿠데타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연루 중앙정보부 연행
- 제 11, 12, 13, 14대 국회의원(4선·현)
- 민주협 상임위원
- 민권회 대변인
- 신민당 학원특별 위원회 소위원장

- 평민당 당기 위원장
- 평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 유세위원장
- 국회 경제 과학 위원장
-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간사(5회)
- 김대중 총재 경제특보
- 신민당 정치 연수원장(기초·광역)
- 신민당 정책위 의장
- 야권통합 대표
- 민주당 정책위 의장
- 조직강화 특별위원, 공천심사 위원
- 민주당 언론대책 위원장
- 제14대 대선기획단 수석 부단장

바뀔시다, 이대로는 안되겠습니다.



강한 민주당으로 다음에는 정권교체!

5 김영배

쥐 잡을 의사가 없는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니다. 집권 할 의지가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이번에는 바꿔보자’는 높은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정책과 인물이 모자라서 졌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감정과 용공음해에 의해서 지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거가 계속된다면 대통령선거는 해서 무엇하고, 정치는 해서 무엇합니까? 상식이 외면된 투표결과에 격분과 실망과 좌절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국민이 존속하는 한 정치는 없을 수 없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민주당의 사명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재정비하기 위해 3월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또다시 지역감정이나 용공음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의 지도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의 만행이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야당 ‘민주당’으로 당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도부가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지략과 과감한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당을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당을 현대화하고 과학화하고, 당내 민주화를 기필코 실현시켜서 단합된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민주당에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무한한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불초 김영배는 이상의 우리당이 가야 할 목표를 위해 계속해서 신명을 다 바쳐 일할 뜻을 약속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불초 김영배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3월 일

김영배

중부권 강화를 위해 김영배가 필요합니다!

김영배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할 여섯가지 이유

- 첫째** 최고위원으로 대선에 책무를 다 한 인물입니다.
그는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기획단장”, “대전·충청권 지원단장”을 맡아 87년 12%에 불과하던 지지율을 28%로 끌어올렸고, 고향인 논산군에서는 우리가 무려 8천표나 이기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피하지 않고 책무를 다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에 필요합니다.
- 둘째** 그는 중부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최고위원은 당의 얼굴입니다. 민주당이 전국 어디에서 보든 「우리 당」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골고루 지도부에 선출되어야 합니다. 김영배의원, 그는 충청도 출신으로 중부권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에 필요합니다.
- 셋째** 그는 30년만에 지자체를 부활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3당야합 이후의 어려운 상황에 원내총무를 맡아 민주당의 내각제 개헌음모를 분쇄하고, 30년만에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키는 등 추진력과 협상에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에 필요합니다.
- 넷째** 지략과 결단력, 추진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여당을 견제하고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략과 결단·추진력이 뛰어난 인물이 지도부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87년 신한민주당 당시 불순세력을 제거하려는 지시가 있을 때, 아무도 맡지 않으려던 당기위원장을 맡아 민주화 추진을 이어가게 한 인물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에 필요합니다.
- 다섯째** 요직을 두루거친 경륜있는 인물입니다.
4선의원으로 사무총장·원내총무·당기위원장·훈원위원장·국회노동위원장·최고위원·정보사부지 부장사건 진상조사단장·한준수군수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 조사단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경륜은 당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는 당의 운영과 대외전략면에 있어서 높은 경륜과 능력이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에 필요합니다.
- 여섯째** 그는 지조와 의리로 정통야당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그는 변절과 해바라기 정치인이 난무하는 현실속에서 오직 한 길 정통야당의 뿌리를 이어온 지조와 의리의 화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맺은 약속은 평생을 지킨다는 좌우명으로 그는 30년 정치역정을 헤쳐왔기 때문에 최고위원에 필요한 인물입니다.

김영배의 다섯가지 약속

- 1 중부권 지지율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
수도권 및 중부권의 승리없이 우리당의 승리는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록한 대전·충청권 지지율 28%가 말해주듯이 충청도 태생으로 충청권 지지율을 더욱 높이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 2 당헌·당규상 제도의 민주화,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화 추진**
우리당의 각종 공직선거 후보(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상향식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신장시키는 것이 당내 민주화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 3 우리당을 정책정당으로 과학화, 현대화 추진**
우리당을 정치, 경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정책정당으로 그 면모를 재정립하고, 통일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정당으로 과학화, 현대화시키겠습니다.
- 4 당을 위해 기여한 당직자가 응분의 대우와 보상을 받는 풍토와 관행 조성**
중앙당 또는 지구당에서 오랜세월 당의 발전과 민주화 투쟁에 공헌해온 당직자 및 당원들이 당으로부터 응분의 대우와 보상을 받는 풍토와 전통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직자들이 희망을 갖고 당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 5 지구당 사무국장의 급료를 중앙당이 지급하도록 추진**
각 지구당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를 중앙당이 직접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구당이 활성화되고, 당세가 확장되어 5년후 대선 승리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신의를 소중히 합니다

6 김정길

“신념과 결단” 이것은 그가 가진 가장 큰 무기이다

김정길은 신념과 결단의 정치인이다. 그리고 신의와 양심을 소중히 한다.

3당야합반대, 민자당의 횡포에 대항한 의원직 사퇴, 야권통합추진과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헌신적 노력을 통해 우리는 김정길의 참모습을 발견한다.

김정길은 왜 3당야합을 거부했는가?
선거구가 부산인 그가 왜 야권통합에 앞장섰는가?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 때 고향부산의
그 많은 비난과 그로 인해 다음 총선에서 또 다시
떨어질지도 모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후보와 함께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며
왜 정권교체를 목매어 외쳤는가?
김정길은 정치사의 중요한 고깃길마다
신념을 갖고 결단을 내렸다.
바로 이런 사람! 새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감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김정길이 걸어온 길

- 부산대학교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제12, 13대 국회의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 통일민주당 수석부총무
- 야권통합협상대표단장
- 민주당 원내총무
- 민주당 부산 영도지구당 위원장(현)
- 민주당 최고의원(현)
- 저서 : 우리의 가을은 끝나지 않았다.

김정길의 다섯가지 약속

첫째 화합과 결속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결할 때입니다. 통합이후
줄곧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당의 화합과
결속을 굳건하게 다지겠습니다.

둘째 당내 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당내 모든 부조리와 잘못된 제도,
관행 등을 과감히 개선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세째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과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하는 정당의 살림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네째 원외지구당의 권익을 대변하겠습니다.
당 운영과정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원의 지구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지구당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지구당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과 청년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야 여성과 청년당원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우리당이 참신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부영이 개혁과 단결이 필요하다
 개혁과 단결이 필요하다

기호7 이부영



이부영과 함께 다시서는 민주당!

개혁과 단결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엷힌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위기의 순간마다 통합과 조정의
 정치력을 발휘했던 사람. 이부영.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개혁정치의 상징'
 '차세대의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부영은 민주당의 자랑,
 민주당에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1월 29일 대법원 원심판기.....
 당원과 국민에 의해 지켜진 개혁정치



지구당과 당원들이 주인되는 민주당을!

민주당은 폭넓은 정치력과 과감한 개혁의지,
 그리고 강력한 실천력을 가진 이부영이 필요합니다.
 이부영은 중앙당 중심의 정치를 넘어
 지구당과 당원들이 당의 주인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민주당에 정착시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선언을 지지하는 시민

1992년 6월 18일 오후 7시 장소: KOEX 회관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깨끗한 정치선언을 지지하는 시민의 밤

이부영이 이루어낸 일

- '법적 공동대표제' 제안으로 야권대통합 실현
- 깨끗한 정치선언과 정치비용 공개
- '민주개혁정치모임' 결성
- 당 지도부 자유경선 실현
- 당 지도부 선출방법 타결
- 원내총무 경선제 도입

경력

- 1942년 서울 출생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동아투위 대변인
- 민통련 상임위원장, 사무처장
- 전민련 초대 상임의장
- 민주화운동으로 5차례에 걸쳐 7년간 투옥
- 야권통합추진회의 상임실행위원
- '새 정치와 개혁을 위한 민주연합' 의장
- 구 민주당 부총재
- 통합 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개혁정치모임 상임운영위원
- (저서)
 「희망의 정치로 가는 길」
 「언론과 사회」외
- (역서)
 「민중의 외침」
 「미국 민주주의론」외



8

더 크고
더 바르고
더 정의로운
민주당을 향한 약속을
드립니다.

대통령후보지명및 제1차 정기전당대회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듯 민주당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김대중 선생과 당이 어려운 시기에도 박영숙은 항상 당을 지켜왔습니다.



박영숙은 여성·환경·개혁의 상징입니다.

- 첫째, 깨끗한 도덕정치, 인간중심의 개혁정치 실현
- 둘째, 여성지위향상과 여성정치참여 확대.
- 셋째, 환경과 복지시대의 생활정치 실현
- 넷째, 젊은 정치인 양성.
- 다섯째, 당 체질개선 및 당내 여성지위 향상.

박영숙이 걸어온 길

경력

- 1932년 5월28일 평양 출생
- 1947년 평양정의여자중학교 재학중 월남
- 1950년 전남여자고등학교 졸업
- 1955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 1959년 9월-1961년 5월 필리핀 극동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및 필리핀 사회사업학교 사회사업과 수업
- 1963년 2월-1969년 2월 대한 YWCA연합회 총무
- 1970년 2월-1974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1981년 1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 1985년 7월 아시아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 1985년 12월 KBS-TV시청료거부운동 여성연합 회장
- 1986년 3월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
- 1986년 6월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대책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 1986년 옹공조작 및 고문철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1987년 11월 평화민주당 부총재
- 1988년 3월 평화민주당 총재 권한대행
- 1988년 4월 평화민주당 제13대 국회의원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보건사회위원)
- 1989년 6월 「녹색의 전화」 대표
- 1991년 4월 평양 제85차 IPU (국제의원연맹) 한국대표단 고문으로 평양 방문
- 1991년 5월 신민당 최고위원
- 1991년 10월 민주당 최고위원
- 1992년 4월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 1992년 5월 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 1992년 7월 (사)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1992년 11월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 1992년 11월 민주당 대통령선거 인천지역대책위원장
- ※1954년-1992년까지 북미, 구라파, 동구, 동남아 등 21개국에서 개최된 39회의 각종 국제회의 참가

수상

- 1990년 12월 환경기자클럽 선정 「올해의 환경인상」 수상
- 1992년 3월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올해의 여성상」 수상

민주당을 아끼는 대의원 여러분,
4명중 1명은
여성최고위원을 잊지 마십시오

10

기호

노무현

그동안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들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노무현이 있는 최고위원회!
그것이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노무현으로 바꾸어 봅시다.

당이 원하면 어디든지 달려 갔습니다.

노무현 그는 부지런한 당의 일꾼입니다. 노무현은 당원들이 부르면 천리길을 마다않고 항상 달려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그의 발길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 나가는 노무현의 모습에서 민주당의 미래가 밝아움을 느낍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최고 위원회만이 민주당의 지도부 자격이 있다고 힘주어 말하는 노무현 후보! 그는 당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위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최고위원회가 단지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선배님들을 모셔서 대우나 해드리는 자리라면 노무현은 감히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무현은 최고위원회가 중요하고 힘든 일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노무현은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신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71년 신민당 전당대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재선이었던 김대중 전대표가 불과 15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전당대회에서 경선에 나섰을 때 모두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신화였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대의원들은 신화를 창조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신화를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의 미래는 자부심을 가진 대의원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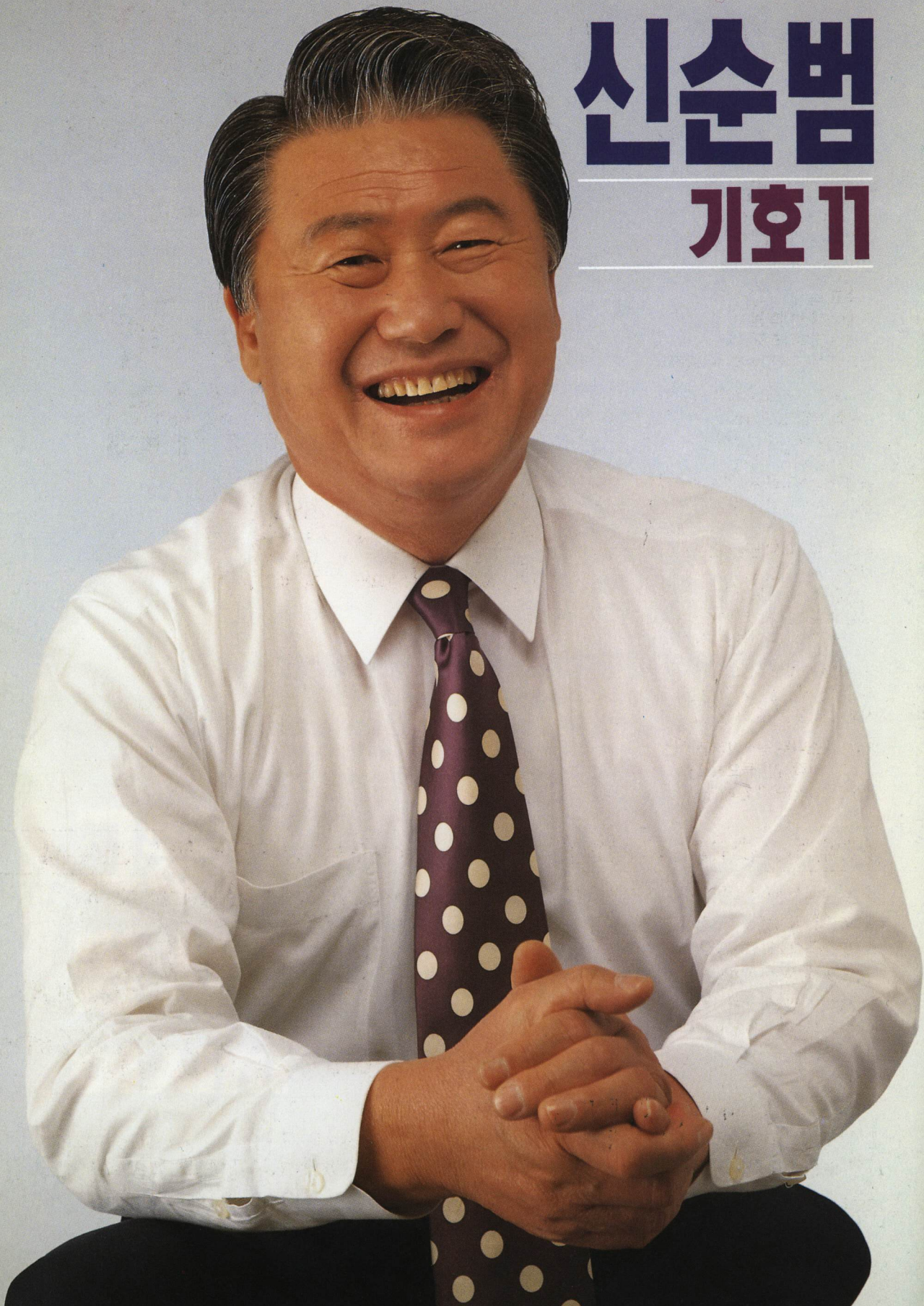
정치풍토와 선거문화를 개선합시다.

최고위원 출마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기탁금 2천만원, 홍보물 2천만원, 조직가동비 등등. 당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필요하다면 더 큰돈이라도 마련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선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깨끗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최대한 소박하게 꾸미고 조직가동비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에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힘을 보태 주십시오.

노무현의 정치일지

1986년 서민의 이름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로 출발. 1991년 야권통합운동의 핵심. 통합민주당 대변인.
1988년 13대 국회 입성. 대국민 인기도 1위. 1992년 지역감정해소를 위해 부산시수를 자청, 14대 낙선.
1990년 3당야합 거부, 통일민주당 탈당. 민주당 창당. 1992년 14대 대선, 청년특위 위원장으로 전국물결 유세.

우편번호: 151-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5서린빌딩308호
전화 : 761-2952~5 FAX : 784-3786



신순범 기호 11

11일의 선택,
11번 신순범

인정과 의리의 정치인, 집념과 의지의 인물

전남 여천 출생

여수고 동국대 정치학과
단국대 행정대학원
연세대 경영대학원
단국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장

11, 12, 13, 14대 국회의원(4선)
민추협 상임 운영위원
신민당 원내수석 부총무
평민당 전남도 지부장
평민당 당세강화 특위위원장
평민당 사무총장

국회 경제과학위원장 위원장
민주당 당무위원
김대중후보 유세위원장
남북 국회회담 한국측 대표
한·리비아 의원 친선협회 회장

농어촌문제 연구소장
재단법인 해산장학회 이사장
사회복지 환경연구소 이사장

저서: 「소나무 동포여러분,
자갈시민 들으시오」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

민주당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 신순범

신순범, 그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할 11가지 이유

1. 동지들이 어렵고 힘들때 가장 먼저 뛰어갈 사람입니다.
2. 동지들의 권리를 앞장서 지켜줄 사람입니다.
3. 동지들의 복지를 위해 가장 노력할 사람입니다.
4. 국민과 함께 울고웃는 활기찬 민주당을 만들 사람입니다.
5. 당세 강화를 위해 가장 열심히 땀 흘릴 사람입니다.
6. 국회운영에 정통하고 당의 살림을 책임져본 사람입니다.
7. 책임감과 의지가 강하고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8. 의리와 지조를 지키고 신념을 굽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9. 문턱이 없고 소탈한 꾸밈없는 사람입니다.
10. 당의 체질개선과 개혁에 앞장서 실천할 사람입니다.
11.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당의 지도부에 꼭 필요한 사람, 신순범

약속은 작게 합니다. 하지만 꼭 실천합니다.

- 각종 당직 경선, 대의원 당무 참여 제도화
- 당원 고충처리실, 보훈국의 신설
- 당원자녀 장학사업의 적극 추진
- 각급선거 공천자 당원의사 반영 결정
- 정당국고 보조금 지구당 할당, 지구당 회계책임자가 내역 공개
- 중앙당, 시도부, 지구당 당직자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 강구

사무총장 재직시
중앙당 당직자 유급제를 해결해낸 신순범



권노갑 —
지금 그가 필요합니다

학력

- 목포상업학교 졸업('49)
- 동국대학교 경제과 졸업('59)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86)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89)

경력

- 김대중 의원 비서관('63~'73)
-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 민정담당 보좌역('71)
- 민주회추진협의회 발기인, 상임위원('84~'85)
- 제 13·14대 국회의원
- 평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88)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 민주당 김대중 대표 최고위원
- 당무특보 겸 특보실장
- 민주당 전라남도 지부장
- 민주당 당무위원(現)
- 민주동우회 상임고문(現)

12 권노갑

단결, 전진, 강력한 민주당을 위하여

결론은 역시 권노갑입니다



선생의 큰 뜻을 이어갈 사람이기에

김대중 선생은 정치일선에서 물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김대중 선생의 정치철학과 국정운영구상을 유지·발전시키고 선생이 앞으로 이 나라와 우리 겨레를 위해 펼쳐나갈 큰 일에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생의 분신으로서 동고동락 30여년, 그의 탁월한 경륜을 몸에 익힌 사람, 권노갑 — 선생의 큰 뜻을 잇기 위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남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기에

민족의 지도자 김대중 선생님 같은 큰 인물을 33년 동안이나 온갖 고난 속에서 단 한번도 흐트러짐 없이 모신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없이 뒤에서 야당통합에 기여하고, 외부인사 영입, '별들의 야당으로의 대거이동'에 남다른 수완을 발휘하고, 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재정적 뒷받침을 해낸 사람, 어려운 야당 동지들에게 늘 따뜻한 만행, 권노갑 — 지금 그가 필요합니다.

대화합을 추진하는 국민정당

- 김대중정신을 바탕으로 강력한 민주당 건설
- 최고위원회의, 당직자회의의 지역별 순회 개최
- 주민토론회, 간담회의 정례화 권장 및 재정지원방안 강구

민권수호 앞장서는 민주당

- 자유경선제로 상향식 민주주의 실천
- 능력 위주의 원칙있는 인사제도 확립
- 당직 인선과 공직 선거에 청년·여성 참여기회 확대

정치선진화 주도하는 정책정당

- 정책위원회 기능의 강화
- 당 부설「정책연구소」설립
- 재원확보 방안으로「민주정책기금」조성

정권교체 이룩하는 수권정당

- 지방의원의 위상 강화 및 자치단체장선거 조기 실시 관철
- 당세 확장·재정자립으로 총선 및 대선 승리 추구
- 당의 과학화를 위한「정보통계실」신설 및 당직자 보수체계 현실화로 사기 진작

민주당의 운명이 동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